농업인 안전

- 감기나 독감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철저
- 작업 시에는 방한복·보호장비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

폭설 대비

- 폭설 시 연료나 사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설이 예상되면 1주일 정도의 비상 연료나 사료를 비축
-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중간마다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시설보강
- 폭설 시 가능하면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(반드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)

축사 화재예방 및 정전 대비

-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,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 변경
-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
-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
- 전선,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
-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·기구에는 접지시설 확인 및 시공
- 축사 내 소화기 비치,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사용을 생활화
-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상태 및 유류량을 매주 1회 이상 점검
-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재해보험 가입

가축 위생관리

- 축사를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
  - 야생동물이 축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, 외부인과 차량 축사 출입제한
- 가축을 자주 관찰하고 가축 전염병이 의심스러울 때,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

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?

동물위생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

신고전화
1588-4060

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063-238-0986 |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63-238-7211

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

가축이 편안해야 농업인도 행복해 집니다.

겨울철 한파는 막고 가축은 건강하게!

- 겨울철 외부 기온이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축은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.
- 가축사육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여 생산성 하락을 막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축사 안전점검으로 시설 등을 보강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폭설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.
- 특히,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.



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



가축별 적정온도

구 분	한·육우	젖소	돼지	닭
적정 온도(℃)	10~20	5~20	15~25	16~24

- 겨울철 강추위와 바람에 노출 될 경우 가축들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축사 적정온도 유지



찬바람 막아주고 보온

- 개방형 축사는 윈치커튼(높낮이 조절 커튼)을 닫아주고 찬 바람을 막아 줌
- 밀폐형 축사는 단열과 보온시설을 점검하고 적정 온도 유지 및 적절한 환기
  - 최소한의 환기를 통해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 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줌
  - 축사 입기구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줄이고 차가운 공기가 가축에 직접 닿지 않고 축사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해 줌
  - 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이용하면 들어오는 찬 공기가 나가는 따뜻한 공기와 교차하여 축사에 들어오게 되므로 추운 날씨에도 효과적으로 환기 가능
- 어린 가축은 특히 추위에 약하므로 찬바람을 막아 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함
- 농장 안과 밖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



한우사 바람막이



송아지 방한복



착유우사 바람막이



포유자돈 보온



위생적인 돈사관리



계사 단열



겨울철 가축 및 축사관리

한우

-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, 바람이 불어오는 서북향에 바람막이 설치
- 온도가 적정 온도 보다 내려가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므로 사료 증량
- 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체내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므로 보온 물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공급
- 갓 태어난 송아지는 마른 수건으로 점액을 닦아주어 건조시키고 보온 등을 쬐어주어 온도를 25℃ 정도로 유지. 어미소의 유두를 깨끗이 닦아주고 빠른 시간 내(30분 이내)에 초유를 먹이도록 함

젖소

- 착유실과 급수시설은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
- 온도가 적정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 증가
  - 0℃일 때는 정상보다 10%, 영하 10℃일 때는 20% 정도 사료 증량
- 젖소의 경우 하루에 물을 150~200L 섭취하기 때문에 물 섭취량이 대단히 중요(보온급수기 등을 활용해 20℃ 내외의 물 공급)
- 편하게 앉아 휴식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은 건조하고 부드럽게 관리

돼지

-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1℃ 내려갈 때 마다 사료량 1%씩 증량 급여
- 새끼 돼지는 보온시설 등을 이용해 적합한 온도(30~35℃)를 맞춰 줌
- 보온에 치중하다 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해가스가 높아져 나쁜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 실시
- 추운 날씨로 인해 음수 공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

닭

-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생산성은 감소하므로 계사 내 적정온도 유지
- 1주령 이내의 어린 병아리 계사의 온도는 32℃ 이상 유지
- 최저 환기를 통해 계사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 신선한 공기 유입
  - 입기 시 바깥의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골고루 섞여 분산되도록 함
- 열풍기 등 온열제품 이용 시 과열에 의한 화재에 주의